

## 지방자치·종합

## 박람회 통해 1억달러 투자 유치

호주 레이화이트사 광양만 배후단지 개발 약속



## 전남도, 외국인투자설명회 성과

여수 세계 박람회를 통해 광양만 배후단지 개발에 1억 달러 투자 협약을 이끌어내는 등 지역 경제도 '박람회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이 같은 외국 자본의 관심은 박람회 폐막 후 박람회장을 활성화하는 사후 활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13일 오후 여수 히든베이 호텔에서 흥식우 지식경제부장관, 박준영 전남지사, 김충석 여수시장, 외국인 투자가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참가 외국인 투자는 국가별로 중국 27명, 일본 21명, 호주·벨기에 각 4명, 미국 3명 기타 3명이다. 업종별로는 물류 5명, 제조 9명, 부동산 개발 14명, 서비스 17명, 금융 7명, 기타 7명이다.

## 中 갑부들 유람선 타고 박람회 온다

오늘 2300여명 방문 이어  
29일·내달 2일 4000여명

중국 갑부들이 대거 여수세계박람회를 찾는다.

전남도는 중국 관광객을 태운 코스 타사의 크루즈선 빅토리아호(7만



## 오늘의 여수엑스포

'바다복장의 카우보이'라고 불리는 한국해양연구원 명정구 박사의 이색강연이 해양비스트관에서 열린다. 통영 앞바다가 바다복장이 된 탄생비화, 기존 어류양식과 차이점 등 색다른 바다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 △한국해양연구원 명정구 박사의 이색강연(해양비스트관·오전 11시)
- △UAE 국기의 날, 문화공연(엑스포홀·오전 10시)
- △말레이시아 문화공연(해양광장·오전 12시 30분)
- △미국 문화공연(엑스포홀·오후 3시)
- △해상소 '꽃피는 바다'(해상무대·오후 2시)
- △특별기획공연 '영님의 흥과 신명'(천마극장·오후 4시)
- △어제의 관람객 수=4만3558명(이하 13일 오후 6시 현재)
- △누적 관람객 수=163만3302명

걸쳐 6000여명의 중국인들이 여수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7월 2일 입항하는 빅토리아호에는 크루즈 운항허가를 담당하는 화동지역 지방경찰청 관리관과 고위 공무원단이 탑승해 박람회 이후 크루즈 유치 등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14일 항행사를 통해 전남도와 여수시, 조직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꽃다발 증정과 취타대 공연을 갖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앞으로도 여수박람회, F1 국제자동차경주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활용, 외국인 투자가들이

전남을 방문하는 계기를 만들고 이를 투자유치로 적극 연결해나갈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신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범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신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농성동(원룸) 대29m2 245.6m2 김정기 4억6천 최저가 3억2천	영암삼호(근린시설) 대77m2 215.2m2 김정기 9억2천 최저가 491.천	화순도곡(방법적립) 대3234m2 24280m2 김정기 42억3천 최저가 18억9천	전주우아들(나이트) 대1794m2 2398m2 김정기 47억4천 최저가 24억	신안동(스포츠타운) 대3026m2 2594m2 김정기 69억3천 최저가 40억8천	치평동(유화주점) 대164m2 944m2 김정기 19억8천 최저가 15억천	중흥동(방법적립) 대2075m2 212510m2 김정기 124억7천 최저가 44억7천
--	--	---	--	--	--	--

유동화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 강원철선(관광호텔) ▷ 대지 993평 ▷ 건물 4989평 ▷ 김정기 95억 ▷ 매매가격 30억(협의후결정)	■ 대전(웨딩홀) ▷ 대지 958평 ▷ 건물 5346평 ▷ 김정기 22억9천 ▷ 매매가격 128억(협의후결정)	■ 광주 생활동(유통시설) ▷ 대지 1520평 ▷ 건물 944평 ▷ 김정기 7억7천 ▷ 매매가격 40억(협의후결정)	■ 담양금성(공장) ▷ 대지 1482평 ▷ 건물 299평 ▷ 김정기 7억 1600만 ▷ 매매가격 5억(협의후결정)
■ 용봉동(중미스포츠plex) ▷ 대지 4076평 ▷ 건물 12943평 ▷ 김정기 51597천 ▷ 매매가격 160억(시설비별도)	■ 대지 2455평 ▷ 건물 445평 ▷ 김정기 18억2천 ▷ 매매가격 80억분할기금(협의후결정)	■ 전북완주 봉동 공장 ▷ 대지 7125평 ▷ 건물 5465평 ▷ 김정기 135억 ▷ 매매가격 80억분할기금(협의후결정)	■ 순천 조례동(주차빌딩) ▷ 대지 646평 ▷ 건물 1708평 ▷ 김정기 43억 ▷ 매매가격 18억2천(협의후결정)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5879-0005

## 도시형 생활주택 부지 매매

▶ 운천저수지 건너편 명지아파트 옆 737평

▶ A필지 도시형생활주택(29평형) 20세대 건축허가필

▶ B필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타입) 48세대 건축허가가능

▶ 매매가 14억5천만원 010-7570-7525

아파트/빌라 박미란팀장 010-9900-3002 주택/재개발 박미란팀장 010-9900-3002 군민주택 박미란팀장 010-9900-3002

당사 보유 부동산 매각

· 광주대앞(지하)호프, 분식 60평원룸형빌라(산수동, 배운동)5칸, 계림동 E마트1층1칸

대출 + 보증금 공제후 실인수가 1천만원 (H.010-6654-6888)

박영준 추가 기소  
윗선 개입 못밝혀檢, 불법사찰 수사 종결  
면죄부 수사 비난 확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박운해 부장검사)은 13일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증거인멸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지난 3월 16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3개월간 재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이날 이런 내용의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에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찰의 '몸통'이나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실체를 밝혀내지 못해 부실, 면죄부 수사는 비

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2008년 S사의 율주군 산업단지 승인 신청과 관련, 지원관실을 통해 윤산시청 공무원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동사서관을 박 전 차관과 같은 혐의로 기소했으며, 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상납해 횡령한 혐의로 이인규(56) 전 지원관과 진경락(45)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기소했다.

검찰은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이 장진수(39) 전 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제공했다는 '관봉' 5천만원의 출처에 대해 조사했으나 출고 은행과 일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같은 검찰 재수사 결과와 발표에 대해 "내곡동 사저에 이은 봄주기 수사, 정치검찰의 진수를 보여준 수사"라며 여권에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 이용훈·이건희·박준영 등 사찰 충격

## 대법원 "사법부 독립 위협 행위"

## 여수~제주 카페리 운항 재개

## 내일부터 1만5661t급 투입키로

지난달 운항이 중단됐던 여수 세계박람회장과 제주를 오가는 카페리 운항이 재개된다.

여수페리는 13일 "빠르면 15일부터 1만5661t급 '코렐리아호'"를 교체 투입해 운항을 다시 시작 한다"고 밝혔다.

'코렐리아호'는 여수엑스포 신항에서 오전 8시40분 출항해 오후 2시10분 제주항에 도착하고, 제주에서는 오후 5시20분 출항해 오후 10시50분 입항한다.

코렐리아호는 1만5661t급 대형 여객선으로 900명의 승객과 자동차 198대를 실을 수 있다. 요금은 3등실 기준 편도 3만6000원이다.

/동부취재부=임문경기자 mtlm@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해온 지원관실이 벌인 500건의 사찰 사례를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찰 대상자 중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10명, 고위 공직자 8명, 전현직 자치단체장 5명, 재벌그룹 회장, 종교인 등 주요 인물 30명이 망라돼 지원관실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전방위 사찰을 진행해왔음을 드러냈다.

특히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대상자에 포함돼 충격을 준다.

감찰활동 사례 중 청수원 전 경찰청장(현 청와대 경호처장)의 경우 동생이 부산에 있는 유흥주점에 투자했는데 뒤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 감찰했으나 근거가 없어 종결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리더십과 직무역량을 정리해 보고한 문건이 있으며,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현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이를 읽은지만 내용이 없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서는 골

고회동과 인사청탁에 관련된 정보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모강인 전 해양경찰청장의 경우 농지법 위반 건에 대한 보고가 정리돼 있었다.

단순 일반동향 파악 대상자 중에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포함됐다. 2009년 2월의 일인데 목록, 제목만 있고 내용은 없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름다운재단 이사이던 2009년 7월에 제목만 있고 내용은 없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가족 관련 동향이 체크됐으며, 송영길 인천시장에 대해서는 이인규 전 지원관이 면담한 내용이 정리돼 있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전직 대법원장이 그 재임 중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동향파악 대상자에 포함돼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고, 청수원 전 경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목과 언론 스크랩만 있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전직 대법원장이 그 재임 중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동향파악 대상자에 포함돼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고, 청수원 전 경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목과 언론 스크랩만 있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전직 대법원장이 그 재임 중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동향파악 대상자에 포함돼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고, 청수원 전 경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목과 언론 스크랩만 있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전직 대법원장이 그 재임 중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동향파악 대상자에 포함돼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고, 청수원 전 경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목과 언론 스크랩만 있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전직 대법원장이 그 재임 중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동향파악 대상자에 포함돼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고, 청수원 전 경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목과 언론 스크랩만 있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전직 대법원장이 그 재임 중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동향파악 대상자에 포함돼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고, 청수원 전 경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목과 언론 스크랩만 있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전직 대법원장이 그 재임 중에 공직윤